

파계사 영산율원 개원

단위 사찰에선 처음... 율원장에 철우스님

조계종 단위 사찰로서는 최초로 율원이 설립됐다. 대구 팔공산 파계사(조실 고승스님·주지 상우)는 지난 9일 영산율원(靈山律院) 개원 고불식 및 현관식을 봉행하고 4명의 학인을 받아들임으로써 전문적인 계율도량으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됐다.

이로써 파계사는 심지율사가 신라 애장왕 5년(서기 804년)

에 개창한후 근세에 이르러 계단 전제사인 故 일우 종수스님이 해인사율원을 거처면서 본격적인 전문율원을 꾸미었다. "불교의 새로운 해명이 이곳에서 비롯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파계사"고 소감을 피력했다. 문인이 통과해야 진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졸업후 평생동안 계율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계획이다. 영산

율원의 산파역인 율사 상우스님은 "29년전 철우스님과 더불어 해인사율원을 거처면서 본격적인 전문율원을 꾸미었다"며 "불교의 새로운 해명이 이곳에서 비롯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파계사"고 소감을 피력했다. 문인이 통과해야 진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졸업후 평생동안 계율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계획이다. 영산

율원이다. 이날 영산율원의 운영 위원장은 보성스님이, 율원장에는 철우스님이, 유나에는 도일스님이 각각 부임했다.

한편 조계종 율원개원에 관한 규제 법령이 오는 6월경에 통과예정인 것으로 있어 영산율원이 종단의 정식인가를 받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율원개원과 관련된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주지 일타) 금강율원도 지난 4월초 총무원에 율원인가를 요청한 상태이다.

현불뉴스

18일 세계만불전 법회

대한불교열반종 의우정사(주지 서해덕)는 18일 오전 11시 세계만불 봉안과 건립을 위한 법회를 봉행한다.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며 추진되는 이번 세계만불전 건립법회에는 태국 미얀마 인도 등에서 보내온 4백기의 부처님이 전달된다.

96 불칭 포교사업 선포

서울지구 21개 청년회는 지난 4일 청년동맹대학교에서 96불칭포교사업 선포식을 갖고 7월2일까지 3개월동안 포교기간을 설정했다. 서울지구청년회가 펼쳐질 불칭포교사업은 △산대회(6월9일) △전국불교청년대회(6월 15·16일) 등을 주요사업으로 펼친다.

불자 18명에 장학금

성남불교산학회(회장 임선교)는 지난 4월30일 성남불교산학회 회관에서 성행심과 학업성적이 우수한 불자학생 18명에게 장학금 2백70만원을 전달했다.

'학장부임준비위' 구성

중앙승가대학은 지난 9일 긴급 운영협의회를 열고 승산스님의 학장사퇴에 따른 학장부임을 위한 준비위원회(위원장 종석)를 구성했다. 교수 교직원 동문 학생대표 각 2인 등 9인으로 구성된 준비위는 덕담과 경영능력 및 학문적 소양을 갖춘 스님을 추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9일 문수사 산행법회

대원불교대학(학장 허성구)은 오는 19일 삼각산 문수사에서 산행법회를 봉행한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법회에는 대원불교대학 재학생, 동문, 대원법사단원, 대원회원 등 5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봉산 케이블카 반대

도봉구정이 도봉산역-도봉산 간장대 사이에 설치하려는 케이블카에 대해 교계와 환경단체가 환경과 파괴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봉산에 위치한 망월사와 천축사 등 사찰과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에 오히려 다수의 등산객을 불러들여 도봉산 황폐화를 앞당기는 반환경적이라며 반대했다. 또 주민들도 케이블카가 마을 위를 지나므로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파계사는 지난 9일 금강을 개조해 영산율원을 개원했다. 이날 개원 고불식에는 통도사 부방장 청하스님을 비롯 해인사 율원장 종진스님, 송광사 율주스님, 교육원 교육부장 학적스님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동참, 육법공양 고불문명독 영산율원설 입지개순으로 진행했다.

범종단 신도연합회 구성키로

부산불교신도회, 정관개정·법인설립등 추진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는 지난달 24일 제1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의명칭을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부산불교신도회'에서 '부산불교신도회'로 개칭하는 정관 개정을 단행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또 부산불교신도회의 성격 조항에 있어서도 조계종에

만 한정년 신행단체 연합체에서 제종파를 초월하는 신도단체연합기구로 새로이 구성할 것 등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부산불교신도회 관계자는 "부산불교신도회 개정은 부산불교신도회의 위상약화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종봉사·가정심방기도 등 자비실천

'정토의 전화' 6월2일 발족

전화 한 통화로 임종과 관련된 불교식 봉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불교자비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민민 소외계층 및 일반 불자들에게 임종봉사와 가정심방기도 봉사를 목적으로 '정토의 전화(회장 대명)'를 개설, 오는 6월2일 조계종 불교회관에서 발족식을 갖는다.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토의전화는 무료장례연불, 극빈자 장의 무료등기, 비하라(불교 호스피스)봉사 외에도 무료급식, 무료진료, 불우이웃돕기, 기도 명상 등으로 이웃돕기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정토의 전화는 타단체 장의부와 연대해 불교장의 기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회장 대명스님은 "민민소외계층에서 우선적으로 임종봉사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토의전화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불자면 어느 누구나 전화해 임종에 대한 도움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이전 설문조사에서 학생회 가입 시기에 대해 52.1%가 1년

은 조계종을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파를 포괄하는 조직 확대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류진수씨가 참석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제18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중앙신도회 준비위의 한 관계자는 "지방 신도조직의 발전적 형태로 본다"면서 "법인설립 추진으로 중앙신도회의 위상약화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나누는 연등, 나누는 마음
봉취위 연등선물하기 캠페인

"불교학생회 활동 성취도 열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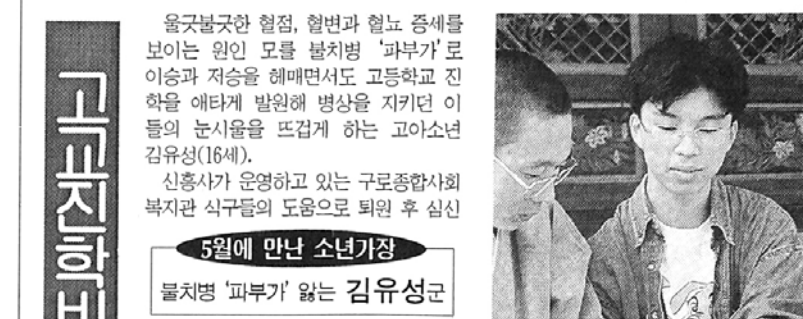
불자학생 374명 설문 법회위주 탈피 봉사프로 개발 절실

청소년포교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급선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4월11일~26일까지 서울지역 사찰학생회와 종합학교 학생회원 3백74명을 대상으로 조계종 포교원 설문조사와 지난 1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발표한 학술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학생회 가입 시기에 대해 52.1%가 1년

미만이라고 답해 지속적인 활동이 부진해 학생들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입시기에 대해 절반이 38.2%, 종교활동을 하기위해서 36.4%, 학생회활동을 권유받았다가 69.5%로 나타났다. 응답자중 73.8%가 가입된 종교활동을 경험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청소년 학술세미나에서 이광준교수(심리학 박



5월에 만난 소년가장
불치병 '파부가' 앓는 김유성군

아픈몸으로 고입검정고시 준비

"컴퓨터 프로그래머 되고싶어요"

을 달라고 있는 유성은 4살 때 아버지의 교통사고 사망, 어머니의 가솔로 혼자 가 됐다. 홀로 남게된 유성은 갑작스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났다. 유성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났다. 유성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났다.

그럴 때마다 유성은 조용한 기도를 올렸다. 복지관 총무국장 설용스님과 보호자로 선뜻 나서주는 신운진과정이 간혹 열리는 '관세음보살'을 떠올리며 두손을 모은 유성의 기도는 손에 어느새 뜨거운 땀이 배어나 있을 정도로 간절했다. 우여곡절 끝에 퇴원한 유성은 지난 4월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4과목이나 합격, 올 8월에 있을 시험에서 나머지 과목만 합격하면 유성이 소원하던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유성이에게는 기쁨도 잠시 고등학교 진학에 따른 경비 마련에 걱정이 앞섰다.

장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싶다는 유성의 간절한 소원이 이뤄질 때까지 유성이에게는 유익한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02)852-0525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서울서 9월9일~12일 열린다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불교우호대회 일정 확정됐다. (관련기사 9면)

한·중·일대표단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올림픽아레나 호텔에서 2차에이회의를 갖고 대회명칭을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서울대회'로 명명하고 대회기간을 9월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위귀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본대회의 주제를 '21세기에 있어서의 한·중·일 불교의 사랑'으로 정하고 각국이 수정제안한 동선언문 문안을 마무리했다.

이번 예비회담에는 방지하(한국수석대표·종단협부회장), 游謙(중국수석대표·중국불교협 비서실장), 水谷幸正(일본수석대표·전 교도불교대학학장)스님을 비롯 15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해 북경대회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서울대회는 미래에 있어 삼국의 불교가 해야 할 일을 모색하며 대화기간에는 삼국의 불교유물전, 영산재실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명락사·흥국사·보현사·소적새마을등

전국서 어버이날 노인위문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교계 제단체들이 펼치는 노인 위안잔치가 풍성하다.

어버이날부터 부처님 오신날까지 보름여에 걸쳐 집중적으로 마련된 교계단체들의 경로잔치는 지난 6일 천태종 명락사(주지 도경)가 관악구내 노인 4백여명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펼친데 이어 정각노인대학(학장 안순진)도 용인 연꽃마을을 방문, 한마당 잔치를 개최하는등 20여 교계단체에서 경로위안잔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흥국사(주지 일문)보현사(주지 일관)는 오는 15일 중계동 사각봉공원에서 지역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꽃노인잔치'를 개최한다.

또 속초사회복지관(관장 지홍)은 오는 16일 속초 원각사에서 재가노인과 후원자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이날 대구 법왕사(주지 보상)에서는 '노인위안잔치'를 전개한다.

소적새마을도 오는 20일 원주 지역민을 중심으로 경로잔치 및 진료소 개소 및 재활작업장을 개장한다.

마음 고정관념 버리기

자기의 생각등, 고정관념이라는걸 다시 한번 생각해

자기의 생각등, 고정관념이라는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과연 진리인가. 그런 고정관념에 대한 의정이 수구적 때 마음의 싸이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어음연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남전

NANSEN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15,000원

법구경

1 2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6,500원

임제

RINZAI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5,000원

조주

JOSHU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5,000원

마조

MATZU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5,000원

탄트라비전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이연화 옮김

6,500원

금강경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7,000원

법구경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6,500원

바리처럼 단번에 지르는 지혜의 완성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7,000원

내 영혼이 눈눈 최초의 청문!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6,500원

마음은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6,500원